

'간다라 미술' 불교문화의 뿌리

민희식·박교순씨 '불교의 고향 간다라'

간다라 불교 이해 없이는 한국불교를 알 수 없다. 한국불교 고향이기 때문이다. 간다라에서 대승불교가 처음 일어났고 불교신앙의 결정체인 불상이 처음으로 조성되는 등 불교미술을 탄생시켰다. 수많은 불상들은 간다라를 기점으로 실크로드를 거쳐 한국 불교에까지 꽃을 피우게 됐다.

불교미술의 본향으로 알려진 간다라를 집중 조명한 책이 나왔다. 민희식 교수(前 한양대)와 간다라 유적 발굴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박교순씨(시인)와 함께 펴낸 신간 <불교의 고향 간다라>(가이아)가 바로 그것. 이 책은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초청 받은 두 저자가 간다라 유적 발굴 연구 계획에 관한 토론과 답사를 한 것을 토대로 엮었다. 민교수는 간다라에 대한 자료수집을, 박씨는 간다라 유적지 현장 답사를 맡았다.

이 책은 히말라야, 카라코람, 힌두쿠시 산맥이 병충처럼 동서로 둘러싸고 있는 간다라의 역사 및 지리적 환경에서부터 불교조각, 불상이 태어난 사상적 배경, 조각에 나타난 부처님

**유적발굴 경험 토대 집필
불상제작 배경등 자세히
민교수 40년간 자료수집**

생애 등이 조목조목 수록돼 있다. 이처럼 <불교의 고향 간다라>는 간다라 문명과 불교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신앙까지도 교감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다. 또 최초로 발굴된 산악사원인 탁트바히사원을 비롯 각종 불상과 관련 사진들도 곁들여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수한 불교미술품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불교문화의 뿌리를 더듬어 본다는 측면에서 책의 가치를 더해준다. 민교수는 "책을 읽어 가다보면 간다라의 불상들속에서 순수한 영혼과 신앙의 열정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자연속에 깃든 조형감과 본질로부터 우러난 창조력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최초로 발굴된 산악 사원인 탁트바히사원 모습.

<불교의 고향 간다라>는 간다라 불교미술을 소개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간다라 불상의 기원에 대한 기존 학술 비판과 발굴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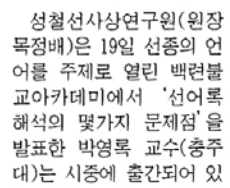
민희식교수는 "1959년 프랑스에 유학할 당시 간다라예술에 매료되어 연구를 시작했다"며 "우리 불교문화의 고향인 간다라를 통해 한국문화의 뿌

리를 더듬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발간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불교미술의 원류로 평가받는 간다라 미술작품들을 전시하는 '간다라 미술대전'이 29일까지 예술의 전당 내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어 해설서로 읽어볼 만하다. 값 8천5백원
김준근 기자(gamja@buddhopia.com)

"수식어 남용..생명력 살려야"

박영록교수 '선어록해석의 문제점' 발표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박영록)은 19일 선종의 언어를 주제로 열린 백련불교아카데미에서 '선어록해석의 몇가지 문제점'을 발표한 박영록 교수(충주대)는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선어록 해설서 몇 종을 예로 들어 선어록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첫째 선사사상이란 용어는 선이 곧 사상인 것처럼 해석하게 되는데 알음알이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인 '선'이 정신세계의 일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둘째, 선어록의 상징은 어느 문맥에서든 지극히 대입이 가능하다는 식의 해석에 대해서 생명력을 강조하는 선에서 이런 책은 대입관계를 따른다는 가정이 옳은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연꽃은 흙탕(번뇌)에서 피어나는 정정함(해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상징 해석은 선사들의 언어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휘 용어로 독립시켜 선어를 개별적인 개념의 문제로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의미가 불명확한 수식어의 남용으로 원문보다 더 애매한 해석을 하는 경우까지 생겨난다. 넷째, 선어록의 비판적 해석은 해석자의 수준이 선사보다 높다고 볼 수 없기에 설부르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불교불교 해설서에 법어나 한문 일어 등이 아닌 영어 단어를 괄호 속에 넣어줄 필요는 없으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부연 비교 설명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opia.com)

새로운 책



▲진리의 향기= 부산 불교방송국에서 초심자를 위해 방송한 기초교리 강좌를 모아 엮었다. 덕천사 주지 원천스님이 엮은 <진리의 향기>는 불교를 공부하자에서부터 사성제, 삼학, (반야심경)까지 초심자들이 불교의 기초교리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알찬 내용들이 담겼다. '작은 것에서 얻은 큰 깨달음'이란 부제로 출간된 이 책은 불교 기초교리 공부에 도움이 된다. 미래문화사 펴냄. 값 8천원.



▲반야심경과 나무아미타불= 정토열불자들을 위한 한탄스님의 <반야심경> 강서. 경기도 고양시 문수수법회에서 법문했던 내용들을 모아 소책자로 엮었다. 신앙의 목적, 본래 부처님인 당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를 얽어매는 수많은 어려움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해 준다고 저자는 말한다. 문수수법회 펴냄. 값 3천원.



▲길을 걷노라니= <흥고 비우고 버리기> <행동하는 참선>의 저자 장명화씨(48)가 내놓은 첫번째 선집. 일상의 자연법칙과 이치를 대입시킨 선시로 또 다른 선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산사에서' '만해를 찾아' '정명 등' '선객귀하' 등 모두 7장으로 1백10편의 선시가 수록돼 있다. 저자는 서초구 양재동에 우곡선원을 개원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동해사 펴냄. 값 5천원.



▲속 페허의 붓다= 편안한 삶만큼 편안한 죽음(에고의 소멸)을 강조하는 무묘양에 특유의 직관과 독설이 번뜩이는 독자들과의 질의응답 모음집 중 두번째 권. 저술이나 민간신앙, 초월적 깨달음의 실체를 분석하는 근본적인 안목과 탁월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이 책은 기존 종교는 물론 새천년기에 우주축순으로 돌아갈 신흥종교의 사회적 영향, 맹신도들의 위험성 등을 지적하는 밀레니엄시대의 종교비판서. 모색사 펴냄. 값 1만원.

고건축서 배우는 깨달음 세계

김봉렬씨 '암과 삶의 공간' 펴내



건축은 영원한가. 위대한 건축은 깨달음의 변화를 담고 있다. 영원한 건축이란 그 깨달음을 전달해주어 또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하며 항상 변화하면서 또 다른 삶을 일깨우는 건축이다. 암이란 깨달음이며 삶이란 변화다. 그런 점에서 현재에 충실한 건축이 영원해 질 수 있다. 몇 십년 밖에 버틸 수 없는 짧은 수명의 한국건축이 영원한 고전으로 다가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김봉렬씨는 "건축은 영원한가. 위대한 건축은 깨달음의 변화를 담고 있다. 영원한 건축이란 그 깨달음을 전달해주어 또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하며 항상 변화하면서 또 다른 삶을 일깨우는 건축이다. 암이란 깨달음이며 삶이란 변화다. 그런 점에서 현재에 충실한 건축이 영원해 질 수 있다. 몇 십년 밖에 버틸 수 없는 짧은 수명의 한국건축이 영원한 고전으로 다가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을 새로운 시각에서 집대성한 '한국 건축의 재발견 시리즈' 두번째 권 <암과 삶의 공간>이 나왔다.

첫번째 권 <시대를 담는 그릇>이 건축을 통한 역사읽기를 시도했다면, 두번째 권이 이 책의 주제는 한국건축의 다양한 전통들이다. 석굴사원에서 정원까지, 개인주택에서 마을까지 1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국건축의 다양한 시대와 정신 그리고 기능들을 다루고 있다. 이 다양한 암과 삶의 건축들을

통해 한국건축의 풍부한 변용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각각의 건축물 별로 주제를 먼저 선정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전통건축의 맥락과 구성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이상건축 펴냄. 값 1만2천원.

현장스님 '죽음을...' 단행본으로 재출간

현장스님(보성 대원사주지)의 <죽음을 준비합시다>가 우리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재출간됐다. 이 책의 내용은 지난해 2월 도서출판 연지문에서 발행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나, 독자들이 읽기 쉽게 편집했다. 또 정도법문을 처음 열고 정토수행자들의 공동체인 백련사를 개칭한 중국 정토종의 첫번째 조사 해원회상(338~417)부터 열번째 조사 철오선사(1741~1810)까지 모두 10명의 조사스님들의 행장을 정리해 추가했다. 우리출판사 펴냄. 값 6천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영가천도	우룡	효림
2	나는 아직도 스님이...	최인호	여백
3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연현규	불교시대사
4	거지성자	전재성	진재
5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참작시대
6	자비나사 원로찾으러	장휘옥	시공사
7	화두이야기	이은운	동아시아
8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	주인환	정우사
9	길잡는 곳에 암자가 있다	정찬주	해물누리
10	백암록	오현	불교시대사

구입문의:(02)737-0695

생활불교 실천불교

조주스님 지음

일상생활속 '불교의 실천' 안내



대중불교는 풍부한 계·율·론 삼장(三藏)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불자들은 흔히 기도 열불 불공 참선 등 불교지식에 대해 단편적인 상식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신간 <생활불교 실천불교>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교리 해설서가 아니다. 시대에 맞는 폭넓은 가르침으로 일상생활속에서 불교의 생활화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 조주스님은 머리글에서 "학생들이 여러과목을 공부하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듯이 불교를 처음 접하는 대중들은 먼저 각종 수행문을 익힌다음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여래 펴냄. 값 7천5백원

불교사상의 연원

김종명 지음

불교사상 어떻게 형성 발전했나



불교사상은 어떻게 형성되어 전해졌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전국불교신도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종명씨가 내놓은 <불교사상의 연원>은 세계사상사 중에서 불교사상은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시대와 사회에 대하여 실제로 어떻게 영향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고 있다. '불교사상의 역사적 고찰'을 시작으로 불교사상의 형성, 근불 불교의 사상, 밀교의 사상 등을 짚고 있다. 저자는 "불교사상의 연원을 조망하고 미래에 불교사상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있게 관망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신아 펴냄. 값 1만2천원.

마음의 여행

이경숙 지음

삶-죽음-영혼의 세계 과학적 설명



불자가 바라보는 삶과 죽음, 영혼과 사후 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마음의 여행>은 선과 명상의 수행을 통해 표현하기 힘든 여러가지 영적인 체험을 한 저자가 종교뿐 아니라 현대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등의 과학에서 삶과 죽음, 영혼의 존재에 대한 근거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종교와 과학 그리고 신비의 세계를 해매고 돌아와 쓰는 방랑기이자 견문록인 셈이다. 불교가 가르치는 의식의 세계와 우주물리학 양자론을 비롯한 과학의 세계 사이에서 영혼과 의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접근을 제시한다. 정신세계사 펴냄. 값 9천원.

오현 스님과 함께 읽는

백암록

새로운 동양의 마음, 현대문명의 애독계 禪!



■ 조오현 역해/신국판 344면/값 10,000원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타스님이야기 별문

이 시대의 정정물서
일타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법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수행자와 재가불자에게 보내는 일타 스님의 해탈과 행복의 메시지108가지. 불교우회집 <백유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과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아운 스님의 <자경문> 등 역대 조사 스님들의 금쪽같은 법문을 소개하면서 불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들려주고 있다. 스님의 체험, 인연담을 곁들여가며 때로는 마음하게 경쾌하고 때로는 자상하게 힘을 북돋아 주는 스님의 법문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버이 같은 따뜻한 정이 묻어 있다.

■ 일화연구원 역음/신국판 344면/값 10,000원

소원성취 영험도량

한국불교 기도성지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적멸보궁을 비롯 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등 한국 최고의 소원성취 영험도량 36곳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 정성문 외 씀/신국판 260면/값 6,000원

불교사상의 이해

교재편찬위원회 편/신국판 454면/값 12,000원
불교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한 새로운 감각의 불교입문서.

선의 역사와 사상

정성문 지음/신국판 534면/값 15,000원
선의 발생과 그 전개를 역사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 선불교(禪佛敎)의 정신과 핵심사상을 명료하게 구명하고 있다.

신반야심경강의

혜달 스님 지음/신국판 228면/값 5,500원
불교사상의 예스스 <반야심경> 강의로, 이 책은 기존의 해설서에서 등장한 반야심경을 통한 인간(人間道)의 해법에 중점을 두면서 <반야심경>을 쉽게 풀어쓰고 있다.

허공의 몸을 찾아서

석지명 지음/신국판 620면/값 12,000원
<법구경> <숫타니파타> <금강경> 등 중요한 경전들을 핵심적 각 경전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현대적으로 풀이하고 있어 경전을 읽기 쉽고 불교를 공부하려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다.

재미있는 禪이야기 100

신지우 편지/신국판 260면/값 6,000원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재미있는 신승 일화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이고 청량한 100개의 선이 100개를 모아 재미있는 일화담 결어해 해설한 책.